

옛 제주인의 삶과 정취를 느끼다

제주 성읍민속마을에서의 하루

제주 서귀포

어느 대중가요의 노랫말처럼 '낭만과 자유의 섬'으로 인식되는 제주도는 '제주=신비로운 바다'란 공식을 만들어냈다. 서양해변을 연상시키듯 푸른 제주 바다는 솜사탕 같은 달콤함이 동동 떠다니는 곳이다. 하지만 제주의 향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즐기기에 바다 하나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성읍민속마을에서 제주도의 또다른 매력을 찾아보자.

30



제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성읍마을 “훈저왕서예”

예전에는 정의 마을이라고 불렀던 이곳 성읍민속마을에 들어서면 정겨운 인상의 돌하르방이 인사를 건넨다. 성읍민속마을은 조선시대 제주 정의현의 도읍지로 제주 동부지역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산골마을이면서 도읍지였던 독특한 이력의 성읍마을은 제주도의 전통가옥과 생활문화가 어느 곳보다도 잘 남아있으며 주민들이 대대손손 살고 있는 민속마을로서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